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2년 4월 (제95호)

발 행 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 행 인 현 윤 재
주 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 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지역소식

홍천을 바라보는 예비 귀촌·귀농인

50~60대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정년퇴직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며 한층 여유롭고 조용한 곳을 찾아 남은 삶의 터전을 꾸리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역에서 귀농인이 되고 싶어 찾고 계시나요?" 제가 1년 전 귀농·귀촌을 했기에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 퇴직을 준비하면서 귀농·귀촌할 곳을 찾으려 유튜브나 부동산을 방문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 생활과 귀촌·귀농생활을 동시에 해야 했기에, 서울 강동구 기준에서 100km 이내, 운행 시간은 승용차로 1시간 이내, 큰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어야 하고, 특히, 큰 바다도 있고 넓은 강도 있으면 했습니다. 물론 자금은 소자본으로요.

여기 저기를 찾다가 홍천이 눈에 들어와 택하게 되었습니다.

홍천군의 면적은 1,820㎢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농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라서 부담도 되고 막막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면사무소였습니다.(면사무소는 가정 정확하게 알려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면사무소 직원에게 처음 던졌던 질문은 "저는 두촌면 원동1리에서 귀촌·귀농을 하려는데 어느 분을 만나서 조언을 들어야 합니까?" 했을 때~ 면사무소 직원분이 추천 했던 분이 바로 제가 사는 지역의 "이장님"이었습니다. 왠지 이장님이라는 소리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의 소개로 이장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두촌면 원동1리 김효식 이장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귀농인 : 안녕하세요? 예비 영농인 초보 김명국입니다. 처음 찾아뵙습니다.

이장 : 반갑습니다. "Welcome to 홍천"
하시더라고요! 뜻밖에 영어로 인사해주며 저를 거실 갑판으로 안내하며 직접 채취한 칡즙을 주시면서 저를 편안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귀농인 : 처음이라 어리둥절합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장 : 우선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쉬시며 "홍천군으로 주소를 이전" 하세요!

귀농인 : 아직 저는 서울에 일도 있고, 일 마무리를 하려면 약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장 : 홍천군에 군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귀촌인으로서 자리잡고 있지만, 앞으로 귀농인이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겉은 홍천 군민인 것처럼 하고, 속은 서울인"이면 귀농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귀농에 실패한 분들은 겉은 귀농인같이 하고 속은 서울인처럼 행동하면서 서두르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 힘에 겨워하며 귀농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홍천인이 되세요!"





◇홍천멀골마을 개막식

순간 저는 아찔했습니다. 저는 적당히 전원생활만 즐기며, 속마음을 숨기면서 폼 잡으려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귀농인 :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이장 : 다음 주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에 꽃 심기를 하니 한번 오셔서 인사하시면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귀농인 : 왜 어르신과 인사를 하나요? 어르신이 외지인이라고 싫어하진 않나요?

이장 : 다른 지역은 모르나 우리 홍천군 어르신들은 외지인과 원주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지에서 온 외지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귀농인 : 정말입니까?

이장 : 저도 외지인이었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고양시"이고 30년을 공무원 생활하다 이곳 홍천군에 7년 전에 와서 정착해서 귀농하다가 3년 전 원주민들이 저를 인정해줘서 "마을 이장"으로 까지 선출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대소사 일을 다 하고 있으며 약 400평 정도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 부럽습니다. 이장님! 홍천군에서 정착해서 멋진 귀농인이 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장 : 홍천군 원주민들은 외지인들이 귀촌·귀농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면서 농사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원래 홍천은 군부대가 많아 외지인이 잘 오지 않았던 곳이라, 외지인이 방문하여 정착한다고 하면 먼저 반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곳이라 외지에서 오시면 잘 적응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이 많은 분들이지요. 그러니 원주민들이 다가오면 피하지 마시고 같이 다가오세요.

귀농인 :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그때의 상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홍천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속에 "홍천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귀촌 1년 차 된 저는 귀농인으로 정착을 하려고 동네 원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가끔은 막걸리도 한잔하며 잘 적응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4월 초엔 100평 정도에 감자를 심을 예정입니다. 올 초 1월에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씨감자를 신청하라고 해서 수미감자 20kg 한 상자 30,960원으로 신청 구입해서 지금 한참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씨감자 싹 틔우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싹이 나와서 감자 눈을 중심으로 감자를 자르고, 싹이 건실하게 자라도록 온도 15℃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처음 심어보는 감자라 싹도 잘 키워야 하고 밭을 잘 일구어 이 글이 기사화될 때쯤엔 감자가 멀칭 속에서 자라고 있을 생각을 하니 지금도 마음이 설렙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홍천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귀농·귀촌 관련 안내는 각 읍·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합니다. 홍천군 귀촌·귀농지원센터 ☎033-430-4166(홍천읍 홍천로 677) 귀농·귀촌을 하는 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많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CONTENTS

02 – 인물탐방
03 – 노인건강
04 – 미래 금융 : 미래 화폐
05 – 노인돌봄
05 – 자원봉사
06 – 복지관 소식
07 – 생활칼럼, 인생칼럼
08 – 공작산 수타사
08 –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자진신고 안내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인물탐방

103세의 어머니를 모시는 고운 효심



◇2021년도 효행자 시상식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이부용 씨.

지난해 12월 29일 (사)범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이사장 최종수) 후원 2021년도 효행자 시상식이 경기도향교재단 명륜교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103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이부용 효녀다. 그녀는 1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주경야독하여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했다.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20년동안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살았으나 1999년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어머니를 큰 딸인 자신의 집으로 모셔 오면서 남 다른 효행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때 어머니의 연세는 81세였다. 어머니는 심한 독감에 걸리셨는데 딸의 정성어린 간호로 돌아가실 고비를 겨우 넘겼다.

그 후 몇 년 동안은 평온하게 지냈으나 어머니가 88세가 되던 해에 또 한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복막염과 맹장으로 위중한 상태로 6개월을 보냈고 그 후유증으로 2년간 병수발을 해야만 했다. 90세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오른쪽 눈이 실명했고 그 이후부터는 왼쪽 눈으로만 생활하시게 되었다. 91세에는 옥상에 심어 놓은 고춧대를 뽑으시다가 쯔쯔가무시 병에 걸려 입원하셨는데 오랫동안 병명을 찾지 못해 큰 고생을 하였다. 또 한 번의 험한 산을 넘고 나서 다시 평탄한 길을 걸었다. 어머니와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각종 재료를 구입해 함께 요리하여 식사도 하고 꽃 구경 나들이도 함께 하며 소소한 일상들을 항상 같이 보냈다.

어려운 역경을 무릅쓰고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
한국방송통신대학 중문과 졸업후 사회 봉사자로

93세 되는 해 2011년 주변에서 이제는 집에서 모시기 어렵다며 요양병원에 모시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계속 집에서 모셨다. 매일 식사와 간식을 챙겨드렸고, 매주 목욕해 드리며 어머니를 간호하고 케어하는 가운데에서도 미처 끝마치지 못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마침내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중문과에 입학해 4년만에 졸업을 하는 큰 성과도 이루었다. 주말에는 결혼식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교에 관심이 있어 수원향교를 드나들며 열심히 유학을 공부했다. 수원향교 장의가 되었고, 몇 년 후에는 수원향교 여성유도회장까지 올라 유림 지도자로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하루하루 눈코뜰새 없었다.

어머니가 98세가 되던 해에 또 한번의 고비가 찾아왔다. 코끝에 피부암이 생긴 것이다. 처음 찾아간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연로하셔서 치료가 어렵다며 포기하라고 했으나 아주대학교 병원에 찾아가 가슴살을 이식하는 큰 수술을 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코가 삐뚤어지게 되었지만 그나마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으니 다행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2018년 장수를 상징하는 연세인 100세가 되었다. 그러나 100세 장수의 축복은 없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셨으나 이제는 나이를 이기지 못하시고 치매가 찾아오게 되었다. 거동을 못 하시고, 대변 조절이 되지않아 방에다 보는 것이 일쑤인 나날을 보내셨지만 어머니를 간호하는 일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소명이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간호하며 케어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난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얼굴은 부모로부터 타고 났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얼굴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뼈이고 나머지는 생각과 마음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 이 여사가 효행자로 표창을 받던 날 잠깐 마스크를 벗자 그 얼굴은 나이에 비해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피부가 고와 보였다. 이 여사는 자신보다는 어머니를 위한 삶으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孝(효) 하나만이라도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신다. 수원 매탄동 통장이 되었고 명절 때에는 어려운 어르신에게 떡국을 끓여 드렸으며, 경로당에 월 1회 방문 및 청소하며 어르신의 말벗으로 봉사했다.

또 매 분기마다 반찬과 음료를 전해 드렸다. 내 부모를 모시듯 다른 부모를 모시고 내 아이를 귀여워하듯 남의 아이까지 귀여워하라 라는 맹자의 말씀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천한 것이다.

어려운 역경들 속에서도 23년간 100세를 넘기신 어머니를 모셨다면 짜증도 내며 힘에 겨울만도 한데, 그러한 모습은 안중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안에 평안함이 깃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효행자의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ever.com)

노인건강

노인과 건강-참늙기(Well-Aging)

건강문제는 인간의 필사(必死)적인 존재이며 원초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노인 건강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2025년 한국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희망은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생로병사의 틀은 벗어날 수 없기에, 참살이(Well-Being)와 참늙기(Well-Aging) 그리고 참죽음(Well-Dying)을 희망한다.

노인이란 노화(老化)된 사람이다. 노화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가 반드시 퇴화(退化)를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변화를 모두 병증(病症)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노화는 초기 성인기부터 시작되는 점차적이고 지속적이며 자연적인 변화인 셈이다. 중년이 되면 초기부터 많은 신체적 기능들이 서서히 저하하기 시작하는 정상적인 노화는 누구나 예상한다. 문제는 질병으로부터의 건강유지이다.

안티에이징(anti-aging)은 노화를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노인을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매니아들은 '육체적으로 아직 괜찮은' 인간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톡스와 페이스 리프팅, 줄기세포 치료에 기대는 것이다.

웰에이징(Well-aging)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노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삶에 반영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즉 노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건강한 노화란 무엇인가? 건강한 노화는 원하지 않는 노화의 효과 지연이나 감소를 의미한다. 건강한 노화의 목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 유지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을 요하며 건강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다. 가장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활발한 정신 활동 유지 등이다. 이러한 습관은 빨리 시작할수록 더욱 좋으며, 이는 언제라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 이렇게 함으로서 노화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노인들은 건강에 대해 본인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자신을 위축시키는 생각뿐만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타파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며, 의무와 권리를 가진 존재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엔렌 랭어(Ellen J. Langer, 75세)는 최근의 저서 '늙는다는 착각(원제: Counter Clock Wise,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기. 유노북스 2022.2)'에서 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이므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게 살면 실제로 신체적인 노화도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랭어 교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과보호를 멈추면서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도록 애쓰면 덜 늙는다.



◇손인형을 만들고 계시는 어르신

웰에이징(Well-aging)을 위해 건강습관 개발의 빠른 시작 필수
사회에 적극 활동·참여, 사회의 동력이 되는 것이 노화 늦추는 길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이 어제는 불가능한 사실이었다.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 또한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할 때 그 가능성은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랭어는 우리가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고정 관념, 사회적 통념, 이름표, 숫자, 의학 상식 등의 한계를 언급하며 점화 효과, 플라시보 효과, 사적자극의 개념과 심리 연구 사례들로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심없이 지내고 있는지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성에 의식을 집중하면 우리는 늙는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본연의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주체적이고 현명한 태도로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설립한 웰에이징센터(Well-Aging Center)를 소개하려한다. 2021년 12월 16일에 개소한 이 센터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의 건강과 체력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지구력(持久力), 상하체 근력(筋力) 등을 검사하는 기구가 어르신 연령에 맞춰 적당한 강도로 설정되어 있어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바른 자세, 척추운동, 인지기능 향상 등 5가지 신체활동과 건강요리 교육도 실시한다. 트래킹(tracking)은 총 70미터 코스로 조성되어 있다. 웰에이징센터에는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건강운동관리사 3명이 상주하고 있어서 개인별 기본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신체활동 솔루션(solution, 해법)을 제공한다. 센터 입구에 들어서면 혈압(血壓) 등 기본 건강체크부터 시작한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강남웰에이징센터는 요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주일에 두 번씩 영양교육(nutrition education)과 함께 평소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어르신 건강에 맞춘 쉽고 특색 있는 메뉴로 인기가 많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요리가 부담스럽다"면서도 "배워야겠다는 의욕이 넘친다. 또한 이용자들의 연령대에 맞춘 인문강좌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문화·교양프로그램과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두뇌튼튼 학습지를 통한 기억활동문제도 제공한다.

'웰에이징'은 적당한 운동과 영양섭취, 이웃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이다. 202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액티브 시니어'를 대체하게 되는 우리말로 '활동적인 노년'을 선정했다. 이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늙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만 해도 500만명을 넘어섰는데, 노인 500만명 중에서 200만명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나이든 사람들도 '요구해라' '일해라' '참여해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고 참여하여 노인들도 이 사회의 동력이 된다면 노화에 대한 죄책감과 인식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무리 하려 한다.

김은기 기자(johnbbun12@naver.com)

미래 금융 : 미래 화폐

미래 화폐 : 디지털로 돈을 만들다

1. 돈의 탄생
2. 돈과 자본주의
3. 현재의 돈

우주의 모든 것이 진화하듯이 화폐도 진화해왔다. 물물교환의 불편을 없애려 처음 조개껍데기에서 금과 은의 귀금속으로, 귀금속은 다시 주화로 발전되었고 주화는 지폐가 되었다. 이제 이 지폐도 바뀌려 하고 있다. 즉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한 디지털 화폐가 그것이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사용 가능성이 짙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알아보자.

디지털 화폐에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이라 칭하는 암호화폐,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전자화폐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들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전자화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용카드다.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는 1950년에 나온 다이너스클럽 카드라고 전해진다. 물론 현금을 갖고 다니는 불편함 때문에 생겨난 아이디어다. 정의하자면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카드나 공중정보통신망과 연결된 PC 등의 전자기기에 디지털 형태로 화폐의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전자지급수단이다. 후불식의 카드도 있고 선불식의 카드도 있다. 일반적 신용카드가 후불식이라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등은 미리 돈을 충전하고 충전된 금액만큼 소비하는 선불식 카드라 볼 수 있다.

다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말한다면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 각각의 머리글자로 'CBDC'라 칭한다. 이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현금 없는 사회를 추구할 목적으로 구상 중이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 또한,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없어 실시간으로 값이 변하는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보자.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crypto'에서 보듯 암호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얻었지만, 이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가상자산이 생겨난 원인은 주지하다시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은행의 파산에 기인한다. 그 거대한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불안이 정부가 관리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전에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또한, 법정 화폐에 대한 불신과 불안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암호화폐라 볼 수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 암호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최초의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채굴한 것이 2009년 1월 3일이었다. 마치 금이나 은처럼 귀한 것을 캔다는 의미로 채굴(mining)이란 표현을 쓴다.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 시스템으로 중앙은행이나 일반 은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채굴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들의 개입이 없으므로 송금이나 이체에 대한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도난 및 분실의 우려가 없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모든 거래의 기록이 중앙집권화되지 않고 분산원장 형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이는 마약이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커다란 단점이 있다.

현재 암호화폐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2009년 처음 비트코인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무려 1200여 개 이상의 코인이 있고 이 중 절반인 600여 개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대표적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모네로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지난해까지도 우후죽순처럼 난립했으나 '특금법' 개정으로 현재는 4곳으로 제한하여 운영 중인데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이 그곳이다.

가상자산은 실체가 없고 투기적 요소가 강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많은 대형 금융사는 물론이고 여러 국가에서도 자산으로 인정해가고 있는 상태다. 유명 IT 회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델, 페이팔 등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며 룩셈부르크는 비트스템프라는 비트코인 회사를 결재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비트코인 자동현금인출기(ATM)도 있다. 영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미국의 코인 회사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 시스템이 핵심 기술인데 이는 앞으로 각종 정부 자료, 연금, 사회보장, 의료보험, 토지등기 및 권리, 특허, 상, 행정기록에 사용될 수 있어 처음 비트코인의 채굴로 시작되었으나 이 기술은 그 파급력이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의 단점인 검은돈의 세탁 문제를 해결하거나 코인의 시세 안정성을 담보한다면 미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노인돌봄

그대들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대들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는가요?

간호사 선생님들!

제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성질머리도 썩 좋지 않습니다. 눈초리마저 초점이 흐리고 흐리멍텅하기까지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칠칠치 못하게 흘릴때가 많고 당신들이 내게 큰 소리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봐유!"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우리 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늘 양말 한 짝에, 신발 한 짝을 바로 옆에 두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모습인가요?

그 모습이 바로 당신들의 눈에 비쳐지는 나에 대한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잠시, 감았던 눈을 다시 한 번 떠 보세요.

그리고 제발... 다시 한 번 저를 진지하게 바라봐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음식을 씹어 먹는 제가 과연 누구인지 말해줄게요.

저는 쉰 살을 넘어서 예순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직업으로 가졌던 일에는 손을 놓고, 이제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앞길을 스스로가 책임지는 성인의 나이가 되었지요. 쉰 살 무렵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 위에 어여쁜 아가들이 앉아 있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내 자식에게 아낌없이 건네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새, 노인이 되어 가고 있네요. 세월은 참으로 빠르네요. 세월의 흐름이 너무 빠르고 빨라서 잔인하게까지 느껴지네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가고 있어요. 우아했던 옷차림은 나이가 들어 칙칙해져 가는 얼굴과 피부에 걸맞지 않게 허름하게 비쳐지고 있어요. 삼십대에 열정과 패기로 가득 넘쳤던 제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지 오래되었어요.

나이들어 버린 제 몸뚱아리 그 안에. 아직도 순수하기만 하는 아리따운 젊은 시절 모습이 남아있어요.

젊은 나날의 기쁨을 기억해요. 그리고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세월이 너무나도 짧았고, 내가 꿈꾸며 맹세했던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사실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바라봐주세요. 나의 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로.

박경임 기자 (qkrruddla8706@naver.com)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어제와 오늘"

자원봉사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시간과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아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며 이러한 봉사는 불규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참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자원봉사는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는 물질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사회를 돕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원봉사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면 예전의 자원봉사활동은 요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청소 및 목욕봉사, 경로당의 이불세탁을 위해 커다란 고무 다라에 세제를 풀어 넣고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깔깔깔 웃어대며 힘이 드는 줄도 모르고 마냥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세탁봉사를 하던 모습들,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면 소속 회원들과 함께 오곡밥과 묵나물을 볶아서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던 옛 모습, 매주 군부대 병사들의 군복에 떨어진 단추를 달고 수선을 해주시던 봉사자들.....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수혜자 위주의 견해보다는 봉사자의 관점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어떠할까"라는 의문을 남겨본다.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만족하고, 수혜자는 당연히 만족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 오늘날의 자원봉사 형태는 자신의 특기를 살리고, 고도의 전문기술을 배워서 오로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의 재능기부 등의 형태로 수혜자의 관점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것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과거에서처럼 타인에게 도움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무조건 헌신을 강조하는 봉사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수혜자가 반드시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함과 동시에 봉사자 자신의 입장에서 본인 자기 개발과 함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일생에 만족과 기쁨을 안겨주는 활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욕구 또는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여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개인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임할 때에 비로소 자기만족과 함께 보람 있는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씩 자원봉사자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뒤돌아보는 자기인식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을 방문할 때에는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한다.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위치와 무슨 상황 속에서도 차이에 따른 구별 없이 존중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에 자원봉사자를 맞이하는 홀몸 어르신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내가 나 본인 스스로 나의 시간을 할애하여 동료들과 함께 진솔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참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인 봉사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자원봉사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 본다.

이복여 기자(boy1145@hanmail.net)

복지관 소식

행복나눔 빨래방 촬영

만족스러운 세탁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

지난 3월 10일, 아침 일찍 일터(빨래방)로 출근하니, SBS방송국에서 나오신 직원분들과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복지관 과장님, 담당 선생님이 이미 자리에 도착해 있었다.

촬영팀과 인사를 나누고, 우선적으로 세탁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댁으로 출발했다. 촬영팀 소속 PD가 옆 좌석에 함께 동승해서 담당자인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서고, 그 뒤를 따라서 카메라맨과 리포터, 그리고 수자원공사팀이 서면으로 향했다.

첫 번째 촬영대상 어르신 댁에 찾아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었다.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차량에서 내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제서야 첫 번째 어르신 댁을 찾았다. 세탁물을 수거하고 촬영을 했다.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어르신 댁은 첫 번째 댁과 달리, 거리상으로도 그리 멀지 않았고, 내게 익숙한 지역이라서 쉽게 찾아서 세탁물도 수거하고,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한 뒤에 또 다시 차량을 돌려서 빨래방으로 향했다.

빨래방으로 돌아오는 도중, 강변도로 위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달리는 우리 빨래방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 하늘에 헬리캠을 띄우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담당PD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움직이면서 촬영하고, 빨래방으로 되돌아오니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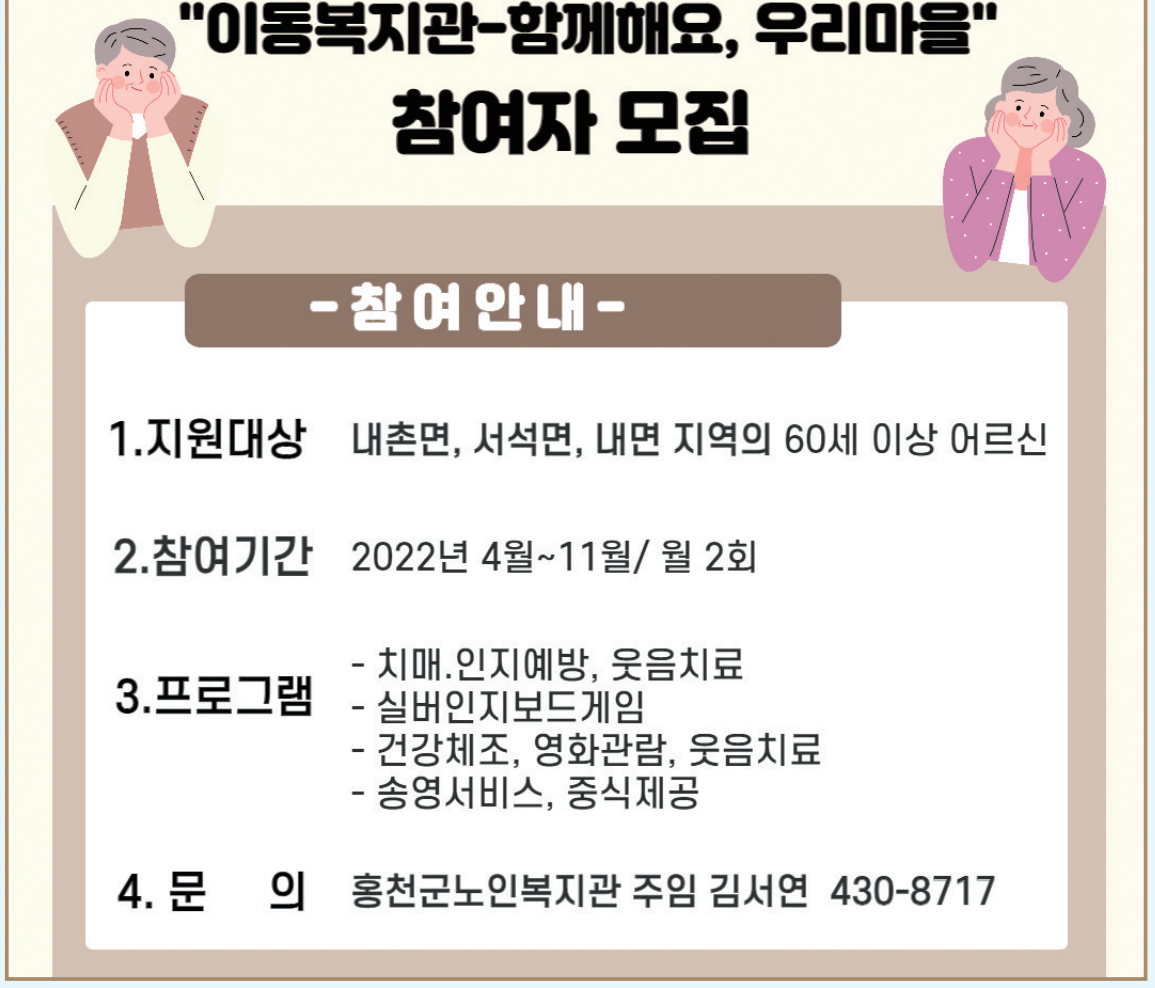


◇행복나눔 빨래방 방송촬영 모습.

우리가 빨래방에 도착할 때까지 점심 촬영을 위하여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비빔밥에 고추장을 더 넣어가면서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장면, 세탁장면, 빨래건조 장면 등을 촬영한 뒤에 곧바로 세탁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향했다. 시간은 벌써 다섯 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세탁물 배달 장면 촬영을 마치고 나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촬영팀은 그곳에서 서울로 떠나고, 우리는 다시 빨래방으로 향했다. 정말 처음 해보는 경험에 지칠 때로 지쳐서 빨래방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났더니 빨래방 업무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만족스러운 세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빨래방 업무의 일상을 잘 살아가야 하겠다.





생활칼럼

소중한 생명에게 꿈을…

일주일 동안 긴장의 연속이어서인지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이면 일의 오차도 없이 잠에서 깨는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부담 없는 토요일이라 여유를 부리며 커튼을 걷어내니 창밖에는 하얗게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입춘이 지나고 경칩이 지났는데, 때 아닌 함박눈이 하얗게 날리고 있다.

지나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듯.

조금 지나니 이에 맞서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며 서로의 마지막 겨울 인사를 하며 봄을 재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왠지 다른 때와 달리 화사한 봄의 풍경을 그리며 기대하고 기다려진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주제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의미를 담고 싶었다.

꽃과 가지를 정리하고 모양을 내며 꽃꽂이를 한다.

따로 버려질까 흐드러진 푸른 잎의 가지 하나라도 모아 모아서 푸른 잎이 다하는 날까지 꽃병에 꽂아 물을 갈아가며 정성을 들여 본다. 이들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오랜 시간 관상용으로 푸른 잎을 바라볼 수 있다.

어느 날 꽃병의 물을 갈아주려 하니 뿌리를 내리며 새순이 나오고 있었다. 그 새순을 잘 관리하여 지금은 잘 가꾸어진 식물이 되어있다.

한 줄기의 식물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고 생명의 소중함으로 함부로 밟고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시들기 전에 관리하고 깨끗이 목욕 씻겨 새로운 물을 갈아주면 빳빳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는 듯 하여 미소를 머금게 하곤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의 저자 최재천 교수는 '알면 사랑한다!'는 믿음이다.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알면 알수록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이 글들을 썼다고 한다.

죽는 날까지 줄곧 동물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그들이 살아가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그리렵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도 제 앞에서 하나둘씩 옷을 벗고 언젠가 그 하얀 속살을 내보이겠지요.

[출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최재천

책 제목만 보고도 공감한다.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 주변 환경의 요인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속에서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유익하게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는 회복이라는 전제하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온 불안한 삶을 티 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당신이 다시 꿈을 펼치기를….

이력서에 덧붙일 자격증을 위해 남은 한 학기는 이제 나의 꿈을 위한 시간의 투자이다.

"잊지 말아야지.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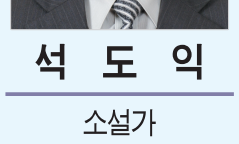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이들에게 '지금껏 몰랐던 이 순간에 생명의 소중함을 끝끝내 지켜내리.'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를 두고 선택의 폭을 넓히자.

시들어져 가는 식물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주어진 삶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들에게 위안과 성취감을 맛보는 참 행복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2의 삶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성실한 대변자의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해 본다.

안영미 기자(ymi0120@hanmail.net)

인생칼럼



석 도 익

소설가

에누리와 덤의 미덕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는 시대에 산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부모를 만나려도 먼발치 유리창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긴 부모 자식 부부 형제자매 간에도 재산과 이해관계 때문에 피터지게 싸우고, 일가친척인 핏줄이라는 연결고리마저 낡아져가며, 이웃사촌이란 말도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 되고, 마음에 담장을 쌓고 나 홀로 사는 세상이 되어간다. 오죽하면 코로나19까지 창궐해서, 그렇게 살 거면 아예 서로 만나지도 말라하는 시련을 주는 것이 신의 엄중한 경고인 것 만 같다.

이웃과 담을 쌓고 사니 날씨가 너무 더우면 마음까지 늘어져 게을러지고 모든 일이 귀찮아지며 쉽게 짜증이 나고, 너무 추워져도 몸을 움츠리게 되고 저마다 자신의 몸만을 둘러싸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 사회가 더 각박하게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정을 나누어 따듯한 체온이 전해져야 살맛이 나는건데 코와 입까지 잔뜩 싸매고 종종걸음으로 자신들의 움막으로 들어가기 바쁘다.

매서운 찬바람이 거침없이 들고나는 노점이나 재래시장서 모처럼 발걸음을 멈춘 손님을 반가워하며 뼈마디 성성한 언 손으로 물품을 봉지에 넣어주고 덤으로 몇 개를 더 넣어주는 상인의 호의는 작지만 푸짐한 정이 건네지며 사가는 이의 얼은 마음이 풍요로 훈훈해진다.

예로부터 물건을 사면 조금 더 주는 것을 덤이라고 하고, 물건 값을 치를 때 주인이 얼마간 값을 깎아 주는 것을 에누리라고 하는데 이는 상인들의 후덕한 마음을 표시하는 상술이기도 하지만 사는 사람은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흐뭇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되어 단골이 되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에도 손님이나 주인이나 모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절반은 양보하면서도 서로 정이 묻어나는 관계가 되며 살아온 것이 우리네 문화였다.

음식점에 식사하러간 손님은 주인에게 "아무거나 주인장 알아서 주시오," 하면 주인은 그 손님의 의중을 알고 음식을 준비해 주었는가 하면, 알아서 먹을 만치 서너 개 달라는 애매모호한 주문일지라도 주인은 꼬치꼬치 묻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주인이 알아서 해주기도 했다.

이는 손님을 정말 왕으로 모셨던 주인의 마음이고 손님 또한 주인을 전문가로 대접해 나머지는 그의 처분에 맡겼던 차원 높고 인격적인 상거래였다.

고속으로 내달린 산업화와 냉정하리만치 느껴지는 정확한 계량개념과 개인의 주관과 개성을 뚜렷하게 표출하는 현대에서는 상품의 정찰제와 다양화된 상품은 기호에 따른 선택으로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짐으로 예전과 같이 과자주세요, 서너 개요. 알아서 아무거나, 한다면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일 것이다.

이렇듯 세대와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어르신들이 향수에 젖어가니 이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상술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법 하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점이나 재래시장에서 싼 물건을 살 때는 에누리나 덤으로 줄 것을 당연한 듯이 바라는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비싼 물건 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바구니에 담는다.

보도자료

공작산 수타사

천년고찰 수타사에서 즐기는 생태숲 산소길

수타사란? 한국의 100대 명산 중의 하나로서 공작산(887m) 서쪽 끝자락 홍천군 영귀미면에 소재한 천년 고찰을 말한다.

수타사는 홍천군 화촌면과 영귀미면이라는 두 개의 지역에 걸쳐 있으며 그 산새가 아름답기를 공작과 같다 하여서 "공작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그 유래가 전해 내려온다.

수타사에서 유명한 것은? 33대 성덕왕 7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편찬한 보물 제 745-5호로 지정된 [월인석보] 권 17~18 2권 1책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세차게 불었던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이제는 매서운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진다. 며칠 전에는 절기상 입춘을 앞두고서 벌써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마치 시샘이라도 하듯이 하늘에서는 펑펑 함박눈이 쏟아져 내렸다. 따스한 기운에 힘입어 함박눈은 비로 바뀌었으며 온 땅을 흠뻑 적시었다. 온 사방에 봄기운이 만연하다. 봄바람이 분다. 봄비가 내리면서 주변 봄꽃 향기가 가득하다.

어느덧 3월 중순. 홍천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손꼽히는 수타사 산소길을 소개한다.

공작산 수타사 주차장에 들어서면 곧바로 안내소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주차장 안쪽, 수타사로 향하는 길쪽을 바라보면 차도와 인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숲길로 조금 더 깊이 들어서게 되면 하늘로 길게 뻗는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빼곡이 우거져 있는 소나무에는 V자 모양으로 파여 있는 흔적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말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松炭(송탄)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송진을 채취하기 위한 표시자국이라고 한다.

수타사 산소길은? 계곡길이다. 수타사에서 출발해서 공작산 생태숲을 지나서 반환점에 해당되는 귕소 출렁다리로 되돌아오는 순환코스로 통한다. 귕소 출렁다리는 계곡에서 약 10m 높이에 위치한 약 45m길이인 현수교를 일컫는다.

'귕소'는 넓고 길쭉한 모양의 沼(소)이며 출렁다리 인근에 있다. '귕'은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인 여물통이라는 강원도 사투리이다.

수타사 산소길에는 귕소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소와 바위가 곳곳에 존재한다. 수타사 공작산 인근에는 '용담'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용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깃들여 있는 소다. 안내판에는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 놓아도 그 깊이를 차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적혀 있다.



공작산 수타사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로 473
- 가는 길 : 춘천JC에서 중앙고속도로를 갈아타고 홍천IC에서 진출
- 참 고: 주차요금 및 입장료 없음

NPS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사망	• 사망
• 재혼, 입·파양	•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 국민연금법상 장애2급이상 해당 여부
•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